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의 여신 연구

문혜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shlove0315@hotmail.com

- I. 머리말
 - II. 무신도에 나타나는 여신의 변천사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인류 최초의 신상은 다산을 상징하는 풍만한 가슴과 배를 가진 여신상으로 기원전 2만 5천 년경의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프랑스 서남부의 레스뷔그의 비너스, 프랑스 남동부의 로셀의 비너스가 가장 오래되었다. 유럽과 근동 지역의 경작문화에 나타난 위대한 여신숭배는 기원전 1천 년경 철기 기술을 가진 기마민족 인도-유럽 인종들이 유럽과 서아시아를 장악하면서, 이들 토착 여신들은 말살되거나 혹은 인도 유럽계 남신들과의 신성결혼을 통해 종속되어갔다.¹

중국에서는 요녕성(遼寧省) 우하염(牛河梁) 신석기 시대 홍산문화 유적에서 대규모의 여신묘(女神廟)와 요녕성 객좌현(喀左縣) 동산취(東山嘴)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만한 가슴과 배를 가진 여성상이 발견되어,² 중국의 신석기 여신숭배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 중국의 여신들은 한대 이후 유교적 이념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통치계층 남성들에 의해 그들이 갖고 있던 강한 힘은 철저하게 해체되었다. 천지창조의 여신 여와와 곤륜산 최고의 여선(女仙) 서왕모는 복희·동왕공(東王公)의 배우자가 되며 그 권능에 제약이 가해졌으며, 남편을 배신하고 불사약을 혼자 먹은 뒤 달로 날아가 버린 항아는 두꺼비로 만들어버렸고, 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파땅의 지도자 늑균의 앞길을 막은 염수의 여신은 사악한 유혹자로 압살의 대상이 되었다.³

1 조지프 캠벨, 『여신들: 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청아출판사, 2016), 25-29쪽.

2 송정화, 「紅山文化的 신화·종교적 의미」, 『中國語文學誌』 제16집(2004); 잔스추앙저, 안동준·김영수 역, 『도교와 여성』(창해, 2005), 38쪽.

3 金善子, 「마녀와 貞節女, 그리고 여신: 드러난 혹은 숨겨진 폭력의 진실에 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38(2006), 331-332쪽.

한국에도 울산 신암리·함경북도 청진 농포동(農圃洞) 신석기 유적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여인상이 출토되었으며, 이들 여성 토우는 신석기시대의 모계씨족사회에서의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⁴ 또한 울산 반구대 천전리 암각화의 여성 성기에서 유래된 다산을 상징하는 마름모 문양에서 한국의 신석기 여성숭배 문화가 유추되고 있다.⁵ 이들 신석기 지모신은 청동기시대에 갑자기 생성된 부권적인 전사부족들에 의해 근본적인 변형, 즉 재해석이나 서사의 소거 등을 경험하게 되며, 남성의 기록문헌에서 배제된 채⁶ 구비신화인 무가(巫歌)에서 수동적인 존재,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의 화신의 이미지로 변하며 전승되어 왔다.⁷ 즉, 고통의 감내와 희생, 헌신 등의 여성의 신성성의 개념들은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들이 더 잘 참아내게 함으로써 그런 억압의 조건들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신들은 변형되었다.⁸

무신도는 무속신앙에서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며,⁹ 무속의 신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신의 능력과 무당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종류로는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그림, 신의 이름을 적은 신위, 신의 모습을 종이로 오린 고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무신도를 그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무신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공간에 봉안되는데, 첫째는 서울 이북의 강신무들이 신병을 앓은 후 몸주신을

4 이건무, 『한국 미의 재발견: 선사 유물과 유적』(솔출판사, 2003), 30쪽.

5 강삼혜,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학적 문양과 선사미술」, 『강좌미술사』 36권(2011), 12쪽.

6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2017), 62쪽.

7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화사연구』 18(2001), 239쪽.

8 Marsha Aileen Hewit, "Do Women Really Need a 'God/dess' to Save Them?: An Inquiry into Notions of Divine Feminine",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 10, No. 2(1998), pp. 155-156.

9 양종승, 「韓國 巫俗神 考察: 巫神圖를 中心으로」, 『몽골학』 4(1996), 95쪽.

신의 형상인 그림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신당에 모시는 경우이다. 서울 무당의 경우 열 분 내외, 황해도 무당의 경우 스무 분 이상의 몸주신을 무신도로 모신다. 두 번째 경우는 마을의 성소(聖所)인 당집에 서낭 혹은 부군 이하 마을 수호신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봉안하여 모시는 경우이다.

물론 무신도는 무속의 성물(聖物)로서 무당의 사후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는 습속이 있어 그 연대가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즉, 현존하는 무신도 자체가 가부장체제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부장적 관념 이전의 여신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문대할망과 같은 한국의 구비신화에서 수동적 존재로서의 가부장적 관념이 배제된 여신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의 여신 신화를 통해 가부장적 관념 이전의 무속의 여신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로스¹⁰는 현존하는 종교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중심에서 물러나 있는 가부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무속의 사제가 대부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곳의 제관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무속의 주요 신에서 여신이 소외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부장적 관념을 “가부장체제의 성립 이후 무속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여신)이 배제되거나 혹은 주변화되도록 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규정하며,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 총 1,233점 중 황해도 무신도 195점을 제외한 서울 무신도 1,038점을 연구대상으로 가부장적 관념이 무속의 여신에게 미친 영향관계를 무신도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0 그로스(Gross, Rita M.) 저, 김윤성·이유나 역, 『페미니즘과 종교』(청년사, 1999).

II. 무신도에 나타나는 여신의 변천사

한국의 구비신화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속의 여신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 자손을 관장하는 삼신을 낳은 당금애기(혹은 이승에서 아이의 목숨을 주고 지켜주는 제주 무가의 삼승할망), 천연두의 질병을 관장하는 호구마마, 농경을 관장하는 제주 무가의 자청비, 재물을 관장하는 제주 무가의 감은장애기 등이 한국 무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신이다. 그 외 무가에서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여신으로 성주풀이의 황우양씨 부인, 제주도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의 어미 원강암이, 제주도 문전본풀이의 부역을 관장하는 조왕신인 여산부인과 측간을 관장하는 노일제데귀일의 딸 등이 있다.

청동기 가부장체제가 성립되면서 중기 이후 신화에서 여신은 점차 남신에게 대부분 중요한 기능을 박탈당하고 종속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잃게 되었으며,¹¹ 이는 청동기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여신의 주요한 기능인 생산력을 지니면서도 신성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신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 웅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홍태한은 한국의 무조신화에서 여신의 변화를 ①생명회복의 능력을 가진 신모에서 일상적인 신모로, ②국가적,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신모에서 지역적으로 전승되는 신모로, ③스스로가 고난을 해결하고 신격으로 좌정하는 신모에서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신모로, ④여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신모에서 중성화된 신모로¹² 규정하였다. 즉, 그는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관계 속에서 무속의 여신의

11 장영란, 「고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변형의 논리와 철학적 상상력 비판」, 『서양고전학연구』 18(2002), 34쪽.

12 홍태한, 「한국 神母神話의 변화상 연구」, 『인문학연구』 3(1999), 193-196쪽.

변화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무조신화에 있어서 능동적 여신에서 수동적 여신으로의 권능의 제한을 주요한 변화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구비신화에서 선문대할망과 같이 남신과의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신들이 점차 바리공주·당금애기·자청비·감은장애기 등과 같이 시련의 통과의를 거친 후 신적 권능을 부여받는 여신으로 변화하게 된다. 여성들의 시련의 통과의를 감내를 통한 신화(神化) 양상에 대해 조현설은 '남성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여신에 대한 상징적 폭력'으로 보기도 한다.¹³ 가부장체제 이전의 지고신이었던 여신들은 가부장체제의 성립 이후 선문대할망과 같이 거인 여신인 마고처럼 죽음을 맞이하거나 남신의 배우자신으로 그 권능이 축소·소외되며 그 수가 감소되어 왔다. 그리고 여신은 때로는 부정적 신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남신들이 주는 시련의 통과의를 거쳐야만 여신의 권능을 얻도록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여신의 변화는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에서도 나타난다. 샤머니즘박물관은 2013년 5월 서울시 정릉동에 설립된 이후 2016년 5월 금성대군을 모시는 굿당인 서울시 은평구 금성당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샤머니즘박물관에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의 각 지역의 특징적인 무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신도에 있어서는 18세기, 19세기의 희귀본 및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화주당 무신도 16본 등 중요 무신도뿐만 아니라 국내 박물관으로는 무신도의 수가 가장 많은 1,038점을 소장하고 있어 무신도의 변천을 연구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샤머니즘박물관의 무신도는 양종승 관장이 고미술품 경매를 통해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우옥주 만신이나 화주당 당주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무신도도 있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에

13 조현설(2001), 앞의 논문, 227쪽.

모셔진 신은 한국의 토착신이며, 그 종류는 신격불명의 무신도 제외 총 50종류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의 신의 종류와 그 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 신의 종류 및 수

자연신(무신도 수)	인신(무신도 수)	기타
<p><u>천신계열</u></p> <p>옥황상제(44), 일월성신(24), 칠성(72), 선관(8), 삼불제석(76), 선녀/팔선녀(31), 오방신장(72), 호구아씨(22), 치우천황(1), 관세음보살(2), 호법선신(3), 천신도사와 선녀(1), 천상갈상(1), 수성노인(2), 백마장군(26), 화덕장군(1), 작두장군(14)</p>	<p><u>한국의 역대 왕</u></p> <p>단군(8), 태조이성계(1), 금성대군(1), 명성왕후(4), 신덕왕후(1), 별상(56)</p>	<p>스님, 도사, 부처, 대왕마마, 후불탱화, 신격불명 등</p>
<p><u>지신계열</u></p> <p>산신(84), 산신도사(29), 약사도사(19), 상산군, 웅할아버지(2), 서낭(4), 대감(2)</p>	<p><u>한국 영웅</u></p> <p>최영장군(1), 장군(63), 옥천대사(1), 육환대사(1)</p>	
<p><u>수신계열</u></p> <p>용왕(64), 용태부인(5)</p>	<p><u>중국 영웅</u></p> <p>관우(6), 유비(2), 제갈량(15), 관우·유비·장비(2)</p>	
<p><u>내세관장</u></p> <p>바리공주(1)</p>	<p><u>무당의 조상</u></p> <p>불사/대신할머니(117), 대신할 아버지(1), 글문할아버지(45), 벼슬대감(4), 동자·동녀(34), 창부(19)</p>	
<p>총수: 606</p>	<p>총수: 382</p>	<p>총수: 50</p>

위의 표1에 따르면,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 총 1,038점 중 불사/대신할머니¹⁴가 117점(1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신이 84점(8%), 삼불제석이 76점(7.3%), 칠성과 오방신장이 각각 72점(6.9%), 용왕과 장군이 64점(6.2%), 별상이 56점(5.4%), 글문할아버지가 45점(4.3%), 옥황상제가

14 작고한 무당을 모시는 것으로 무당의 영험함과 무업의 번창을 돕는 신이다.

44점(4.2%) 순으로 많았다. 즉, 남신을 모신 무신도의 종류 및 그 수가 여신을 모신 무신도의 종류 및 그 수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신격불명의 무신도 제외 50종류의 무신도 중 43분(86%)의 무신(巫神)이 남신이었으며, 여신은 선녀/팔선녀, 호구아씨, 용태부인, 바리공주, 명성왕후, 신덕왕후, 불사/대신할머니로 전체 무신도의 종류 중 14%를 차지하였다. 단, 남신으로 분류된 무신도 중 일월성신 중 3점, 산신 중 1점은 여신으로 표상되어 있었으며, 동자·동녀의 무신도는 동자만 표상된 무신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동자와 동녀가 같이 표상되어 있었다.

또한 남신이 여신보다 무신도로 모셔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은 서울곳의 곳거리에서 모시는 제신이 거의 남신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즉, ①주당물림 - ②부정/가망청배 - ③불사거리 - ④산거리 - ⑤조상거리 - ⑥상산거리 - ⑦별상거리 - ⑧신장거리 - ⑨대감거리 - ⑩성주거리 - ⑪창부거리 - ⑫뒷전에서 남녀조상을 모시는 조상거리와 잡귀잡신을 대접해서 보내는 뒷전을 제외한 모든 거리의 제신은 남신이다. 즉, 여성의 종교로 간주되는 한국의 무속에서조차 청동기시대 이래의 가부장체제를 거쳐 오면서 여신이 소멸·축소·변형되면서 그 위상이 감소되어 온 것이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 중에서 여신은 불사/대신할머니(117점), 선녀/팔선녀(31점), 호구아씨(22점), 용태부인(5점), 명성왕후(4점), 신덕왕후(1점), 바리공주(1점)가 있다. 반면 대부분 남신으로 표상되나 몇몇의 무신도에서 여신으로 표상된 무신도로 일월성신(3점), 산신(1점)이 있다. 이를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지고신인 자연신·여성 거인신,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을 받은 이후로 변형된 여신으로서의 시련의 통과의를 거친 여신, 부정적 이미지화한 여신, 축소된 여신의 계보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적 관념 이전의 여신

1) 자연신

원시 사회에서 자연은 생동하는 유기체적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는 생명을 창조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자연신은 여신으로 표상되었다.¹⁵ 그러나 원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으며, 여신도 점점 힘을 잃게 되어 남신에게 자리를 뺏기거나 보조자(배우자) 혹은 부정적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¹⁶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 중에서 여성 자연신으로 표상되는 무신도로는 일월성신, 산신, 용궁부인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신도에서 남신으로 표상되고 있어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을 받은 이후 그 권능을 뺏기거나 배우자로 종속화된 신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무신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일월성신 무신도는 총 24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일월성신이 여성으로 표현된 무신도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총 3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까지 여성은 태양신, 남성은 달의 신으로 표상되었다.¹⁷ 중국의 신화에서도 태양을 낳은 것은 여신 희화이며,¹⁸ 일본의 『고사기』에도 태양의 신은 여신 아마테라스이다. 한국에서 여성을 태양신으로 표현한 신화나 도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 모계 사회에서 여신은 최고신과 그 기능신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¹⁹

15 송정화, 『중국여신연구』(민음사, 2007), 94쪽.

16 강민경, 「도교적 상상력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고찰: 마고할미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28(2008), 43쪽.

17 조지프 캠벨(2016), 앞의 책, 102쪽.

18 송정화(2007), 앞의 책, 95쪽.

19 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을유문화사, 1984).

중국·일본과 함께 태양이 여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도상에서 일월성신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각저총, 쌍영총,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개마총, 강서중묘, 천왕지신총, 장천1호분, 무용총, 약수리벽화분, 오회분4호묘, 오회분5호묘 등이 있다.²⁰ 고구려 벽화에서 해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들어있는 원의 도상으로, 그 맞은편의 달은 두꺼비가 들어있는 원의 도상으로 표상되어 있다. 두꺼비가 들어있는 달은 남편 예의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로 달아난 항아의 상징으로,²¹ 중국의 달의 여신 항아²²가 이미 고구려 시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회분4호묘에서는 태양을 들고 있는 남신과 달을 들고 있는 여신의 도상이 그려져 있어, 고구려 시대 이미 태양은 남신이고 달은 여신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No. 13-01-930
일광 월광 보살님

No. 13-01-1005
일광 월광 보살

No. 13-01.983
일월성신

그림1-여신으로 표상된 일월성신 무신도 및 19세기 일월성신 무신도²³

- 20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형백과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의 고구려 벽화 사진들을 참조하였다.
- 21 예가 불사약을 서왕모에게 청하였는데 항아가 그것을 훔쳐 달로 달아나려다가 有黃에게 점을 쳤다. 유황이 점을 쳐보고 말했다. “길하다. 歸媒卦를 얻었으니 홀로 서쪽으로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더라고 놀라거나 두려워 말라. 후에 크게 번창하리라.” 항아는 마침내 달에 몸을 맡겼는데 두꺼비가 되었다(송정화(2007), 앞의 책, 102쪽).
- 22 잔스추앙(2005), 앞의 책, 73쪽.

이러한 관념은 위의 그림1의 가장 우측의 19세기 무신도에서 나타나듯이, 구한말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일월성신 무신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신도에서 일월성신은 남신으로 표상되고 있다. 일월성신 무신도가 두 분의 남신으로 표상되는 것은 “두 개의 해와 달을 무쇠 화살로 쏘아 각각 하나씩으로 만든 해의 신 대별왕과 달의 신 소별왕”이라는 설이 있다.²⁴

한편 위 그림1의 첫 번째·두 번째 무신도에서 일월성신이 불보살의 모습으로 표상된 것은 사찰의 칠성각에 걸려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칠성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칠성탱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별을 관장하는 칠성광여래를 중앙에 두고, 그 아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그 아래 칠월성군을 배치하는데,²⁵ 위의 불보살 도상의 일월성신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형상과 유사하다. 또한 좌로부터 세 번째 무신도는 한국의 무신도에서 보기 드문 도상으로, 한국에서 현존하는 도상 중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여신임을 표상하고 있는 희귀본이다. 이에 한국에서 태양신은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여신이 태양신이었던 신화적 맥락에서 여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고구려 이후 태양신은 남신, 달의 신은 여신으로 표상되어 왔음을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유교의 가부장체제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성신(星神)들이 남신으로 변화되었으며,²⁶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한국의 무신도에

23 좌로부터 3점은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이고, 마지막 그림은 미국의 고미술품 도록인 ROBERT MOES, *AUSPICIOUS SPIRITS: KOREAN FOLK PAINTINGS AND RELATED OBJECTS*(D.C: International Exhibition Foundation, 1983), p. 81에서 참조하였다.

24 이수자는 일월성신이 남성 두 명의 신으로 표상되는 것이 한국의 창세신화인 배포도업침, 무가에서는 초공본풀이라고 불리는 신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수자, 「무신도 <일월신도>의 형성 배경과 문화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8(2004), 161쪽).

25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폴빛, 2016), 313쪽.

26 잔스추앙(2005), 앞의 책, 106쪽.

서 일월성신 및 칠성신은 남신으로 표상되고 있다.

둘째,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 중 여성 자연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신도가 있다. 고래로 산은 여신을 상징하며,²⁷ 중국에는 곤륜산의 서왕모가,²⁸ 일본에는 후지산을 비롯하여 산의 신을 여신이라고 믿는 신앙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²⁹ 한국에서도 산신은 고대 여신으로 표상되었는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제2대 남해차차웅의 운제부인이 운제산 성모로 나오며, 신라에서 제일 큰 제사(大祀)를 받았던 내림(奈林, 현 경주 낭산)·혈례(穴禮, 현 청도 부산)·골화(骨火, 현 영천 금강산)라는 세 여산신이 나온다. 이 외에도 치술령성모, 선도성모 등의 여산신이 기록되어 있다.³⁰

이에 대해 손진태는 한국 고대 사회에서 산신은 대체로 여신이었으며,



No. 13-01-451
산신

그림2-여산신도

이는 가부장체제하에 여산신에게 부신(夫神)이 붙게 되고 남신이 주신(主神)이 되면서 여신은 단지 산신의 부인의 지위로 하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³¹ 물론 한국의 산신이 모두 남신인 것은 아니지만, 산신의 남성화는 고려조부터 명산들에 작호가 내려지면서 국가제전에 편입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산신 무신도는 총 84점이며, 아래의 그림2와 같이 그 중 한 점만이 산신을 여신으로 표상

27 조지프 캠벨(2016), 앞의 책, 112쪽.

28 송정화(2007), 앞의 책, 121-122쪽.

29 우정미, 「일본의 명산과 여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2), 236쪽.

30 일연 저, 이민수 역, 『삼국유사』(을유문화사, 2017), 62쪽, 83쪽, 103-105쪽, 510쪽.

31 손진태(1984), 앞의 책, 9-11쪽.

하고 있어 고대 여산신들이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 산신의 남신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여성 자연신 무신도로 용궁부인이 있으며, 다음의 그림3과 같다. 한국의 무가에 표현되는 용신은 중국의 사방을 지키는 사해용왕(四海龍王)인데, 중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해양신이 되었다.³² 용신은 불교에 민간신앙이 습합된 신으로, 용신이나 용궁부인의 표상은 한국의 불화 중 삼불탱³³이나 신중탱³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탕화에서 용신은 대부분 단독으로 표현되며, 관복을 입은 남신으로 표상된다.³⁵ 이러한 불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무신도에서도 용신은 대부분



No. 13-01-148
용궁부인



No. 13-01-900
사해용태 부인

그림3-용신부인

32 二階堂善弘, 「長岐唐寺の媽祖堂と祭神について」,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2(2009), 99-100쪽.

33 삼불탱은 석가를 중심으로 약사와 아미타 삼불을 봉안한 그림이다.

34 신중탱은 범존과 제석천이 위에 자리 잡고 그 아래 위타천이 삼각구도를 이루며 수많은 제신을 배치한 그림이다.

35 정병삼(2016), 앞의 책, 305쪽.

용을 타고 있는 관복을 입은 남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용궁부인도 여산신과 같이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 용신의 배우자로 종속되어 그 권능을 빼앗기고 지위가 하락한 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용신 무신도 69점 중 5점만이 여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에서 물의 여신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사해용왕이 한국에 전파되기 전의 물의 여신은 어떻게 표상되었을까?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건국시조인 혁거세는 나정에서, 그 부인 알영은 알영정에서 태어났다.³⁶ 『후한서』 등 많은 중국 사서들은 동옥저의 보기만 해도 아이를 낳는 신성한 우물(神井)에 대해 전한다.³⁷ 즉, 우물은 탄생의 공간으로 여성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물의 여신이다. 이후 우물의 여신은 용신의 거처로서³⁸만 표상되며, 사해용왕이 전파되면서 그 부인으로 흡수되며 용신에게 종속되게 된다. 요컨대 여산신, 용궁부인은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서 신성결혼을 통하여 남신에게 중요한 기능을 박탈당하고 종속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잃은³⁹ 여신으로 볼 수 있다.

2) 여성 거인신

여성 거인신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한국의 여성 창조신 설화로 전해지는 선문대할망,⁴⁰ 마을의 시조신 설화로 전해지는 마고할미⁴¹

36 일연(2017), 앞의 책, 59-60쪽.

37 권태효, 「우물의 공간적 성격과 상징성 연구」, 『민족문화연구』 56권(2012), 257쪽, 278쪽.

38 김명숙, 「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3)(2016), 144쪽.

39 장영란, 「고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변형의 논리와 철학적 상상력 비판」, 『서양고전학연구』 18(2002), 32쪽.

40 선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쪽으로 벌려 제주도 땅을 창조한 거신계 여신으로, 충남 해안의 지대의 보령, 서천, 서산군 등지에서는 갱구 할머니, 영남에서는 거신 할머니로 불린다. 경남 해안 지대에도 이름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할머니가 지네 한 마리를 잡아다가 만든 '지네섬'이 하동군 앞바다에 있다고 전해진

가 있다. 이들 설화는 여성 거인이 산과 물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만들어내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의 서사는 신화적인 주체로서 여신의 고형(古型)으로 이해되며 이웃한 문화권인 중국의 여와와 같은 거인 여신에 비견된다. 이 여신은 어느 신성(神性) 혹은 신성계와도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대국가 전 시대부터 자연신이 가졌던 속성이다.⁴²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에 표상되고 있는 여성 거인신으로 설문대할망이나 마고신은 없다. 이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이행 단계에 물장오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설문대할망,⁴³ 17세기 전후 유교적 교화의 확장이라는 지배관념 속에서 살해당한 강원도의 마고여신⁴⁴의 맥락에서 가부장적 관념이 확산·심화되면서 죽음을 맞이한 여신의 사례로 봐야한다.

이런 이유로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에 설문대할망이나 마고신의 무신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고와 같이 도교계의 선녀(女仙)가 한국 여신으로 흡수된 사례는 볼 수 있다. 선녀는 한국에서 마고와 같이 마을의 시조모로

다(손진태(1984), 앞의 책, 9-11쪽).

- 41 마고는 17세기 이전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18세의 젊은 선녀로 동경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의 문헌상에서 마고는 거구의 신체로 괴력의 신통력을 가진 할머니와 결합하면서 산봉우리에 걸터앉거나 산오름을 만들거나 산을 옮기거나 돌로 산성을 쌓거나 바다를 걸어다니는 등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산신과 해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마고는 선문대할망을 비롯한 한국의 내륙산간 및 해안지역의 마을의 지모신 마고할미(노고할미, 마구할매, 해양할미, 각시서낭 등)의 원형으로 간주되어, 초기 여신숭배의 지모신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강진옥, 「강원도지역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1993), 23쪽; 주강현, 「동아세아 해양과 해양신앙」, 『도서문화』 27(2006), 5쪽).
- 42 윤혜신, 「한국 고대 여신의 유형과 역사적 先後 관계: 神格 획득방식을 기준으로」, 『東方學志』 제162집(2013), 147쪽.
- 43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2호(2013), 125-128쪽.
- 44 권도경, 「한국설화의 남성성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男性性 연구사의 마이너리티와 젠더적 남성성의 시작점 문제」, 『한민족어문학』 68(2014), 506쪽.

모셔지거나 여성 강신무의 몸주신으로 모셔진다. 선녀는 여선(女仙) 즉, 여성 선인(仙人)을 지칭한다. 선녀가 언제부터 한국의 여신으로 모셔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선녀의 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 앞방 남쪽 천장고임의 직녀와 앞방 서쪽 천정에 쟁반을 든 옥녀(玉女)⁴⁵ 그림이다. 덕흥리 고분의 옥녀 도상과 선녀 무신도는 다음의 그림4와 같다. 한국의 무신도에서 선녀의 도상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옷을 입고 긴 부채를 든 한 명의 선녀와 지물을 들고 있지 않은 여덟 명의 팔선녀 도상으로 나누어진다. 팔선녀는 중국의 전설상의 칠선녀(七仙女)가 중국 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승과정에서 점차 팔선녀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그림4-5세기 초 덕흥리 고분 옥녀 벽화와 선녀 무신도

45 옥녀는 여자 선인의 존칭이다(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25(2009), 285쪽).

46 김영진, 「『南總里見八犬傳』의 八犬士와 八仙女·八仙」, 『외국문학연구』 56(2014), 18쪽.

위의 그림4와 같이 17세기 이전의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고는 18세의 젊은 여선이었다. 그런데 마고가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명대(明代)의 마고선녀가 청대(清代)에 마고할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인하며,⁴⁷ 이는 가부장체제의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제된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의 역할, 정조 있는 아내의 역할 속에서 ‘젊고 유혹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박탈되면서 ‘늙고 후덕한’ 여성의 이미지로 변화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⁴⁸ 이와 같이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서 할머니로 변형된 마고 선녀는 18세기 이후 조선 각지의 노고·갯구·해양·각시서낭 등의 거인 여신설화와 결합되며 마고할미화되어 갔다.

따라서 서울 무신도의 선녀는 도교의 여선이 한국에 습합된 신으로, 삶의 부귀영화와 기쁨,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며, 오통선(五通仙)을 가진 자들로서 칠성, 산신도사 등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아기를 점지하거나 명복을 주기도 한다.⁴⁹ 이에 반해, 내륙산간의 산신이나 해안지역의 해신으로 나타나는 마고선녀는 한국의 토착 지모신과 중국의 여선이 습합된 신으로,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서 지모신에서 여선으로 그 지위가 축소되는 탈신성화를 겪은 여신으로⁵⁰ 볼 수 있다. 지모신으로서 마을의 제당에 모셔지는 마고할미는 일반적으로 도상이 아닌 위패⁵¹로 모셔지고 있다.

47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 37(2010), 213쪽.

48 金善子(2006), 앞의 논문, 333-334쪽.

49 양종승, 「황해도 곳에 쓰이는 종이 神花와 神具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 『한국무속학』 13(2006), 28쪽.

50 강민경(2008), 앞의 논문, 44쪽.

51 마을의 당집에 모시는 무신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로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部落祭』(1937)가 있다. 1937년 당시 함경남도 安邊郡, 평안남도 平原郡, 황해도 載寧郡, 경기도의 경성부와 고양군, 강원도 原州郡과 伊川郡, 전라북도 沃溝郡의 당집에서 무신도를 봉안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村山智順 저, 최석영 해제, 『部落祭』(민속원, 2008), 173-199쪽). 즉, 일제강점기 당

2. 가부장적 관념 이후의 여신

1) 시련의 통과의례를 거친 여신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바리공주 무신도는 19세기 작품으로 다음의 그림5와 같다. 무신도 속의 바리공주는 저승으로 건너가는 강을 관장하는 용을 타고 있으며, 그 옆으로 저승 갈 때 타고 가는 배가 조그맣게 묘사되어 있다.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바리공주 무신도가 1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공주는 무당이 몸주신으로 잘 모시지 않으며 망자천도굿을 할 때는 저승을 관장하는 십대왕 무신도를 걸고 연행하기 때문에 바리공주 무신도는 귀한 편이다.

한국의 무조(巫祖) 신화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바리공주』는 제주도를 제외한 북한지역, 동해안 경상도 지역, 중서부 지역, 전라지역으로 전승지역을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무가권에 따라 연행방식이나 세부 묘사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서사의 기본구조는 동일하다.⁵² 이에 서울의 바리공주본을 요약하면, “바리공주는 일곱째 공주로 태어나 버림을 받지만 부모님이 병에 걸리자 약을 구하러 떠나 갖은 시련을 겪은 후 철성(鐵城)에 이르게 되고, 그 곳을 지키는 무장승을 위하여 3년씩 세 번이나 나무를 하고 불을 때고 물을 길어 주는 가운데 9년이 지난 후 무장승과 혼인하여 일곱 아들을 낳아주고 약수를 얻어 부모의 병을 고친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린 공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조신(巫祖神)이 된다.”⁵³는 서사 구조이다.

시 당집의 무신도는 전라북도 옥구군을 제외하고 경기도·강원도 이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당집에 봉안되는 무신도는 근대화로 인한 강신무의 전국적인 확산에 의해 1980년대 이후부터 전국의 당집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주로 서울·경기 이남지역에 마고할미로 모셔지는 당신은 위패로 모셔지는 경향이 많다.

52 홍태한, 「김석출 구송 〈바리공주〉 연구: 〈방신굿〉 무가 연구」, 『한국무속학』 4(2002), 210쪽.



그림5-샤머니즘박물관 소장
19세기 바리공주 무신도⁵⁴

앞서 기술했듯이 바리공주의 시련의 통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생산·양육·희생·순종·인내라는 여성적 신성성은 남성 지배를 견고히 하기 위해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들이 더 잘 참아내도록 그들의 표본인 여신에게 덧씌워진 장치이다.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시련의 통과의례를 거치는 무속의 여신으로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경기도 성주풀이의 황우양씨 부인,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사신(蛇神) 칠성·이공본풀

이의 원강암이·세경본풀이의 자청비·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애기 등이 있다.⁵⁵ 여신이 시련의 통과의례를 거쳐 신의 권능을 획득하게 된 것은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 하에서 나타나는 여신의 권위의 축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부정적 이미지화한 여신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호구아씨는 22점이 있다. 호구아씨의 도상은 아래의 그림6과 같이 머리에 관이나 족두리를 쓰고 있으며, 20세기 이후의 작품에는 족두리에 활옷을 입은 무신도가 대부분이다. 호구아씨의 신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천연두를 앓다 죽은 처녀신이라는

53 서울새남굿보존회 편, 『서울새남굿 신가집』(문덕사, 1996), 173-201쪽.

54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 중 18-19세기의 희귀본은 유물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전시하고 있다.

55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2010; 김나영, 「한국 여신들의 영웅적 삶과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 11(2013).

것이다.⁵⁶ 둘째, 호구를 아기씨라고 부르는데, 이는 결혼 전에 천연두를 앓고 일찍이 세상을 뜬 공주나 왕주를 지칭한다는 것이다.⁵⁷ 셋째, 호구는 강남별성(江南別星)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신이 중국 강남에서 유래하여 한국에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호구(胡鬼)로 와전되어 쓰인다는 것이다. 즉, 호구는 서울 이외의 곳에서 손님신으로 칭해지는 마마신(천연두신)이다.⁵⁸

또한 현종(1835-1849)때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호구는 “맹인의 그림과 어린 여자아이 그림도 있는데 여자 아이는 마마호구신이라 한다. 신령들 앞에는 연지와 분가루 등을



19세기 말
호구아씨



No. 13-01-375
호구아씨

그림6-19세기(左) 및 20세기(右) 중후반 호구아씨 무신도

-
- 56 권선경, 「여성 원혼의 존재양상과 신격화의 의미: 서울지역 호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2014), 336쪽.
 57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0쪽; 고영희,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 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1(2006), 164쪽.
 58 조홍윤(2000), 앞의 책, 51쪽; 홍태한,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37(2003), 386쪽.

놓아두어 심히 난잡하다.”고 하였다.⁵⁹ 즉, 이규경은 호구를 마마신으로 보고 있으며, 19세기의 호구아씨는 여아로 표상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 호구아씨는 마마에 걸려 죽은 처녀신 혹은 웅주·공주신, 천연두신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구를 이규경과 같이 천연두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곳에서 호구거리는 고문서인 『무당내력』에 독립된 거리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불사거리에 간단한 축원과 공수만 주는 부속된 거리로 남아있다. 이는 지석영이 1882년 우두점종을 시작한 이래 근대 서구의료에 의해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곳거리의 중요성이 낮아져서 서울곳의 ‘호구거리’는 신의 본풀이인 호구노정기가 생략되고 곳거리가 축원과 공수로 축소된 것이다.⁶⁰

호구아씨는 한국의 지모신인 설문대할망 혹은 마고할미와 달리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젊은 이미지의 여성, 즉 처녀로 표상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병을 옮기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신이다. 물론 호구아씨는 무속의 곳거리에서 남신들과 동등하게 무신으로 모셔지지만, 서울곳의 호구거리에서 무당은 홍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곳을 연행하며 이는 마마를 앓다 죽어서 얼굴이 엷어서 부끄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⁶¹ 다시 말해서, 호구아씨는 곳 제의에서도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을 표상하는 신으로, ‘추함’과 ‘병을 옮기’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의 무속에서 여신 호구아씨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구아씨는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여신들의 권능이 약화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된 여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5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참조.

60 염원희, 「무가를 통해 본 서울곳 노들제 연구」, 『인문학연구』 19(2011), 128-129쪽.

61 홍태한, 「서울곳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37(2003), 386쪽.

3) 축소된 여신의 계보

고대 여성숭배의 사제자는 신녀(神女)였다. 이는 의례와 신화에서의 상징적 역할에 의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다시 의례와 신화는 모계 사회적 구조로부터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도 시조모인 알영, 남해왕의 왕비 운제부인, 탈해왕의 누이 아로 공주는 여사제로 왕과 왕비가 국가 최고의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그리고 여사제였던 왕비나 공주들은 죽어서 신이 되어 여신의 계보를 이루게 된다. 남해왕의 비인 운제부인은 죽은 뒤 운제산성모로 신격화됐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 고려 말까지도 숭앙되었다. 남편 김제상을 사모하여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 죽어서 치술산신모가 되어 제사를 받게 된 박제상의 부인⁶³도 실성왕의 딸이다.

무속에서 흔히 억울하게 죽은 왕족이나 영웅이 신으로 모셔진다고 하는데, 운제부인의 경우 원혼과 상관없이 신라 최고의 여성이 죽어 신이 된 사례이다. 고대 가장 먼저 숭배 받은 여신은 오직 한 명으로, 새로운 씨족의 어머니가 죽으면 그녀는 신의 행렬에 편입된다. 이와 같은 규율과 순서로 여신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층위로 나타나는 모계씨족의 여신계보가 구성되었다.⁶⁴ 다시 말해서, 여신의 후계자인 운제부인과 같은 여왕이나 아로와 같은 공주는 죽어서 여신의 계보에 합류되어 새로운 여신으로 태어났다. 한국의 무속에서 무당의 몸주신으로 모셔지는 여신 중 가야의 허왕후, 신라의 선덕여왕, 조선의 신덕왕후·명성왕후 등이 이에 속한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신덕왕후 무신도와 명성왕후 무신도는 다음의 그림7과 같다.

62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 67(2008), 115쪽.

63 일연 저(2017), 앞의 책, 62쪽.

64 잔스추앙 저(2005), 앞의 책, 39쪽.



19세기 말
신덕왕후



No. 13-01-215
명성왕후



No. 13-01-330
명성왕후

그림7-19세기 신덕왕후 무신도(左)와 20세기 중후반 명성왕후 무신도(右)

또한 신라 중기 이후 한국의 토착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여사제의 지위는 무당에게로 이어졌으며, 무당은 유교를 토대로 한 가부장적 관념이 확산되면서 그 지위가 하락되어오다가 조선시대에는 8대 천민으로 전락하며 탈신성화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은 죽어서 대신할머니란 신으로 여신의 계보를 이어갔다. 대신할머니는 무당 자신의 집안에서 무업에 종사했던 여성 조상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할머니 무신도에 작고한 무당의 성을 붙여서 ‘○씨 대신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신할머니 무신도 중 흰색 고깔에 흰색 한복을 입고 손에 염주를 들고 있는 불사대신할머니가 있는데, 이는 천신줄을 타고 강림한 무당 조상이라고 한다. 불사대신할머니 제단에는 불교의 신을 모시듯이 육류나 어류를 올리지 않는 것 외에 대신할머니나 불사대신할머니나 점복을 비롯한 무당의 전반적인 무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⁶⁵

⁶⁵ 2011년 10월 8일,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새남굿 이수자 강민정 인터뷰.



그림8-불사/대신할머니 무신도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무신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은 대신할머니로, 이는 가부장적 유교사회 속에서도 여사제자에 의해 여신의 계보가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샤머니즘박물관 불사/대신할머니의 무신도는 그림8과 같으며, 그 도상은 크게 선긋을 하고 있는 도상과 앉아서 점복을 보고 있는 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 중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불사/대신할머니 무신도는 앉아있는 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실의 여성들은 고대 국가의 여사제였고, 이후 이들의 지위를 물려받아 가부장체제 하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사회적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무당들은 사후 여신으로 재탄생하며 무속에서 한국의 여신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III. 맺음말

여신은 청동기 이래로 가부장체제가 확산되면서 남신에게 그 권능을 뺏기거나 신성결혼에 의해 종속되어 갔으며, 이후 별다른 기능을 맡지 않거나 부정적인 기능을 맡은 존재로 전락되기도 했다. 그리고 가부장체제가 견고해진 이후에는 여신을 완전히 배제한 남신의 신화가 출현하게 되었다. 남성 중심의 체제에서 여신의 죽음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발달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의 창출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축출과 제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신석기 홍산유적에서 여신숭배 문화가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울산 신암리·함경북도 청진 농포동의 여인상, 울산 반구대 천전리 암각화에서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는 마름모 문양에서 신석기 시기 한국의 여성숭배 문화, 즉 최고신으로서의 원초적 여신이 발견되고 있다. 이후 고구려벽화 이외에 한국의 여신을 찾아볼 수 있는 신상이나 도상은 거의 없지만, 무당이 죽으면 무신도를 태우거나 묻는 습속에서 18-19세기 이전의 무신도를 찾아보기는 힘들어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비신화 혹은 동아시아 여신 신화를 참조하며 무속의 여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서울 무신도 중에서 남신 무신도가 86%, 여신 무신도가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여신은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쇠퇴·변화·소멸의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에 나타나는 가부장적 관념 이전의 지고신의 성격을 가진 여신으로는 자연신인 일월성신·산신·용궁부인, 거인신인 마고할미(선녀)가 있다. 중국의 도교에서 전파된 선녀는 중국의 고대 무녀가 분화

된 직능신으로 간주되는데, 그 중 마고 선녀는 농촌과 어촌에서 한국의 지모신과 습합된 마고할미가 되었다. 또한 고대 여신 중에서 가부장적 관념 이후 배우자신으로 흡수되며 남신에게 자리를 빼앗긴 여신으로는 일월성신, 산신, 용신이 있으며, 부정적 이미지화한 신으로 호구마마신이 있으며, 남성 중심의 신화 속에서도 곳곳하게 사후 여신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덕왕후·명성왕후와 같은 왕족 출신의 여신들, 그리고 고결한 여사제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는 무당의 조상신인 대신할머니가 있다.

의례는 사회의 지배질서를 표출하며, 의례 자체가 권력의 위계를 창출한다. 그래서 가부장적 관념을 대표하는 유교의 국가제사 체계에서 자연의 표상이었던 여신은 명산대천의 작호를 남신에게 빼앗기며 그 권능을 잃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중종교인 무속에서는 아직 고대 이래로 계승되어 온 여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의례의 동등한 권력으로 부터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 그 이미지가 변질되어 왔지만 아직도 무신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여신들에 대한 발굴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 현대 사회에 한국의 여신들이 재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서울새남굿보존회 편, 조흥윤 감수, 『서울새남굿 신가집』. 문덕사, 1996.
- 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연구』. 을유문화사판, 1984.
- 송정화,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2007.
- 이건무, 『한국 미의 재발견: 선사 유물과 유적』. 솔출판사, 2003.
- 일연 저,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17.
- 잔스추앙 저, 안동준·김영수 역, 『도교와 여성』. 창해, 2005.
-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 풀빛, 2016.
- 조지프 캠벨, 『여신들: 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③. 청아출판사, 2016.
- 조흥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村山智順 저, 최석영 해제, 『部落祭』. 민속원, 2008.

ROBERT MOES, *AUSPICIOUS SPIRITS: KOREAN FOLK PAINTINGS AND RELATED OBJECT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Exhibition Foundation, 1983.

2. 논문

- 강민경, 「도교적 상상력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고찰: 마고할미를 중심으로」. 『도교 문화연구』 28, 2008, 37-56쪽.
- 강삼해,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학적 문양과 선사미술」. 『강좌미술사』 36권, 2011, 11-37쪽.
- 강진옥, 「강원도지역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1993, 3-47쪽.
-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2017, 45-74쪽.
- 고영희,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 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1, 2006, 149-173쪽.
-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 67, 2008, 101-129쪽.
- 권도경, 「한국설화의 남성성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남성성 연구사의 마이너리티와 젠더적 남성성의 시작점 문제」. 『한민족어문학』 68, 2014, 505-542쪽.

- 권선경, 「여성 원혼의 존재양상과 신격화의 의미: 서울지역 호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2014, 319-344쪽.
- 권태효, 「우물의 공간적 성격과 상징성 연구」, 『민족문화연구』 56권, 2012, 253-292쪽.
- 금영진, 「『南總里見八犬傳』의 八犬士와 八仙女·八仙」, 『외국문학연구』 56, 2014, 9-30쪽.
- 김나영, 「한국 여신들의 영웅적 삶과 특성」, 『한국문화와 예술』 11, 2013, 19-58쪽.
- 김명숙, 「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3), 2016, 139-187쪽.
- 金善子, 「마녀와 貞節女, 그리고 여신: 드러난 혹은 숨겨진 폭력의 진실에 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38, 2006, 317-342쪽.
-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249-290쪽.
- 송정화, 「紅山文化의 신화·종교적 의미」, 『中國語文學誌』 제16집, 2004, 47-72쪽.
-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 37, 2010, 183-222쪽.
- 양종승, 「韓國 巫俗神 考察: 巫神圖를 中心으로」, 『몽골학』 4, 1996, 95-155쪽.
- _____, 「황해도 곳에 쓰이는 종이 神花와 神具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 『한국무속학』 13, 2006, 7-43쪽.
- 염원희, 「무가를 통해 본 서울굿 노들제 연구」, 『인문학연구』 19, 2011, 113-141쪽.
- _____,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2010, 305-333쪽.
- 우정미, 「일본의 명산과 여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2, 217-230쪽.
- 윤혜신, 「한국 고대 여신의 유형과 역사적 先後 관계: 神格 획득방식을 기준으로」, 『東方學志』 제162집, 2013, 135-166쪽.
- 이수자, 「무신도 <일원신도>의 형성 배경과 문화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8, 2004, 147-178쪽.
- 장영란, 「고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변형의 논리와 철학적 상상력 비판」, 『서양고전학연구』 18, 2002, 31-59쪽.
-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화사연구』 18, 2001, 291-242쪽.
- 주강현, 「동아세아 해양과 해양신앙」, 『도서문화』 27, 2006, 2-28쪽.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2호, 2013, 101-136쪽.

홍태한, 「한국 神母神話의 변화상 연구」. 『인문학연구』 3, 1999, 183-200쪽.

_____,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37, 2003, 385-406쪽.

_____, 「김석출 구송 〈바리공주〉 연구: 〈방신굿〉 무가 연구」. 『한국무속학』 4,
2002, 209-228쪽.

二階堂善弘, 「長岐唐寺の媽祖堂と祭神について」.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2, 2009,
pp. 99-108.

Marsha Aileen Hewit, "Do Women Really Need a 'God/dess' to Save Them?:
An Inquiry into Notions of Divine Feminine."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 10, No. 2, 1998, pp. 149-156.

3. 사이트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문초록

울산 신암리·함경북도 청진 농포동의 여인상, 울산 반구대 천전리 암각화의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는 마름모 문양에서 한국의 신석기 여성숭배 문화가 발굴된 이래, 한국의 여신은 무신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무신도는 무속신앙에서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샤머니즘박물관 무신도의 신격 총 50 종류 중 43분(86%)의 무신이 남신이었으며, 여신은 선녀/팔선녀, 호구아씨, 용태부인, 바리공주, 명성왕후, 신덕왕후, 불사/대신할머니로 전체 무신도의 종류 중 14%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신이 청동기 이래 가부장 체제가 확산되면서 남신에게 그 권능을 빼앗기거나 신성결혼에 의해 종속되어 갔으며, 별다른 기능을 맡지 않거나 부정적인 기능을 맡은 존재로 전락되기도 한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샤머니즘박물관 소장 여신 무신도를 연구대상으로, 가부장적 관념 이전의 자연신·여성거인신, 가부장적 관념 이후의 시련의 통과의를 거친 여신·부정적 이미지화한 여신·축소된 여신의 계보로 분류하여,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무속의 여신들의 변모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무신도의 여신을 가부장적 관념의 영향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무속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여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9. 3. 19.

심사일 2019. 4. 15.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한국의 여신(Korean goddess), 무신도(Paintings of shaman gods), 가부장체제(Paternalistic system), 여신의 죽음(Death of goddess), 여신의 탄생(Rebirth of goddess)

Abstracts

Changing History of Korean Goddess

Mun, Hea-jin

Mariolatrous culture in Korean neolithic era can be proved by female figurines in Sinsamri of Ulsan and Nongpodong of Chengjin and a lozenge pattern in Bangudae Cheonjeon-ri Petroglyph Rock of Ulsan, which signifies the female fecundity. And then, Korean goddess are shown in paintings of shaman gods. Paintings of shaman gods are an iconographical representation of gods in Korean shamanism.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is 1,038 paintings of shaman gods in the museum of shamanism, which were used by shamans in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 of Korean goddess and their changes under male-centered system, using paintings of the museum of shamanism. Among those in the museum of shamanism, the gods are 86% and the goddesses such as Taoist fairy/8 Taoist fairies, Hoguasi(a smallpox goddess), a wife of the sea god, princess Bari, Empress Myeongseong, Empress Shinduk, grandmother Balsa/Daesin are 14%. This shows that goddess have been lost their powers by the gods, have been subordinated to the god by sacred marriage and have been disappeared or evil since the Bronze Age when a paternalistic system was constructed. Therefore,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prototype and changes of Korean goddess under a paternalistic system, categorizing paintings of shaman goddesses into a nature goddess, a giant goddess, a goddess held the testing initiation, a devilish goddess and a family tree of goddesses. This study might be helpful for highlighting Korean goddesses and understanding their change.

